

‘한글’과 ‘언문’* : ‘과학적’ 국어학과 관련하여

김 영 환**

1. 머리말
2. ‘언문’과 ‘한글’
 - 1) 글자 이름 ‘한글’ 비판
 - 2) ‘언문’의 뜻-최만리의 상소문
 - 3) ‘언문’의 사전적 의미
3. ‘언문’의 의미에 대한 논란
 - 1) 안확-‘과학적’ 국어학의 선구자
 - 2) 이기문 이후-안확 주장이 변저나감
4. 낫춤말 ‘언문’
 - 1) 거룩한 문자와 언어-한문과 라틴어
 - 2) 낫말 의미론에서 본 ‘언문’의 뜻
 - 3) 조선 선비는 왜 한글을 외면했나
5. 맺음말

〈국문초록〉

안확은 ‘과학적’ 국어학을 내세우며 ‘언문’에 낫추는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글’이란 새 이름은 필요 없었으며 한갓 민족주의에 치우친 감정적 비학문적 반응의 산물임을 주장하였다. 주시경 학파의 전통을 불신하는 데는 일본에서 유입된 ‘과학적’ 언어학의 영향력이 컸다. 이런 안확의 주장은 경성제대 조선어문학과에 ‘과학적’ 국어학이 소개되기 전이었다. 경성제

* 이 논문은 부경대 자율창의연구비(2019)의 지원을 받았음.

**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kyh@pknu.ac.kr)

대 조선어 문학과와 '과학적' 국어학과 안확의 주장은 내용에서 연속성이 많다. '언문'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한글전용 문제, 맞춤법 문제와 더불어 조선어 학회와의 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시경 이래의 근대 국어학이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있음을 '과학적' 국어학은 보여주고자 했다. 안확의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에서 문제가 많아 곧 잊혔으며, 오늘날 이를 다시 되살릴 이유도 전혀 없다. '언문'에 관한 주장도 잊힌 지 오래였다. '과학적' 국어학을 좇는 이기문 등에 의해 이 낡은 주장이 되살아났고 또 지금도 번져가는 추세에 있다. 언문의 부정적인 의미는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가장 선명하다. '언문'이 가치중립적으로 쓰이는 맥락에서도 부정적 태도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자를 작은 중화의 상징으로 보는 문명 의식, 학문어, 교육 언어로 근립했던 한문(진서, 진문)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대로 적는 글자라는 '언문'이 사전적인 의미 규정과는 관계없이, 낮추는 뜻을 갖게 되었다. '언문'의 쓰임새가 늘어났지만 하층민의 글자로 머물렀다. 한 낱말의 의미에 부정적 긍정적 가치 평가가 공존하는 게 일반적이다. '언문'이 중립적 뜻으로 쓰인 몇몇 보기에서 낮추는 뜻이 없었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안확은 '언문'의 의미에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조선어 학회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 길은 맹목적 대결과 부정에서 출발하였으며 제대로 된 비판이 아니었다.

* 주요어: 한문, 주시경, 안확, 이기문, '과학적' 국어학

1. 머리말

우리 글자 이름 '한글'은 주시경이 처음으로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시적인 기록은 없다. 『보충친목회보』(1910.4.)에서 '국어'를 '한나라 말', '국문'을 '한나라글'을 줄여 '한말'이나 '한글'이 생겨났으리라는 짐작이 있다.¹⁾ 박승빈의 기록에 따르면 율희 말년 조선 광문회에서 주시경이 조선 글자의 존송을 위하여 '언문'이란 이름을 버리고자 대안을 찾던 가운데

최남선의 제안을 주시경이 받아들인 것이다.²⁾ 그러나 ‘한글’이 널리 쓰이게 되는 과정은 대부분 주시경 학파에 힘입고 있다.³⁾ 그 뒤로 ‘한글’은 우리글자 존중의 정신이 깃든 말, ‘언문’은 우리 글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로 정착되었다. 한글이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서 훌륭한 글자를 수백 년 간 돌아보지 않게 된 지성사적 배경에 대한 반성이 시작되면서 부정적 의미가 강한 ‘언문’은 역사 속에 묻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일제 때부터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있었다. 자산 안확의 주시경 비판이 그것이다. 폭넓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저술을 남긴 안확이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거의 잊힌 사람이었다. 그는 일본에 소개된 언어학을 바탕으로 주시경을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비판은 주시경 학문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치고 있다. ‘언문’에 부정적인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학술용어에 순수 고유어를 이용하는 주시경 계열의 연구자들을 비판하였다. 조선어 학회의 형태주의에 기초한 맞춤법 표준화에도 반대하고 관습을 존중하는 맞춤법을 지지하였다. 그는 경성제대-서울대 중심의 ‘과학적’ 국어학의 앞선 형태를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에 이기문은 「안자산의 국어연구-특히 그의 주시경 비판에 대하여-」에서 안확의 주시경 비판을 거의 모두 긍정하였다. 안확의 주장을 ‘민족 문화를 올바르게 밝히려고 한 그의 노력’(85쪽)이 망각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주시경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민족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 그의 연구의 목표’(87쪽), ‘신선하고 통쾌한 느낌’(88쪽), ‘자산의 머릿속에 민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음’(94쪽), ‘자신의 맞춤법 문제에 대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애썼음’(94쪽)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국어의 계통과 역사에 대해 눈을 돌리게 한 점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것’(99쪽)은 평가도 긍정적이다.

1) 고영근,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앤씨, 2008, 165~166쪽.

2) 박승빈, 「한글맞춤법통일안에 대한 비판」, 조선어학연구회, 1936, 4쪽. (1973년 통문관 복사간행)이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다. 고영근, 앞의 책, 170쪽을 보라. 이운재의 발언과 권덕규의 자료를 기초로 박승빈의 말이 위증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3) 고영근, 앞의 책, 166~171쪽을 참조.

그러나 안확의 주장에 대해 그 당시에도 격렬한 비판이 있었고 오늘날 그것을 되살릴 이유도 없다. 이 논문은 ‘언문’에 낮추는 뜻이 없었다는 안확의 주장이 되살아나 번져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여기서 나타난 여러 주장을 ‘과학적’ 국어학의 추구란 공통점으로 묶어 비판하려 한다.⁴⁾ 특히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이 안확의 주장과 결합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2. ‘언문’과 ‘한글’

1) 글자 이름 ‘한글’ 비판

‘언문’의 의미를 다루기 전에 국어와 한글에 대한 그의 여러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안확의 국어와 국문에 대한 학설은 주시경 비판에 집중되어 있다. 그의 주시경 비판은 크게 외래어 배척, 맞춤법 개혁, 글자 이름 ‘한글’ 사용 등을 겨냥하고 있다. 또 주시경은 문법의 원리 원칙을 모른다고 비난하였다.

以上에 의한 바, 주씨 일파의 曲論은 문자와 언어를 혼용하며 어떠한 감정에 自陷하여 怪癖한 언론을 주장하니 학생에 就하여는 오히려 害만 있고 利는 없는지라. 觀건대 조선어는 조선문으로 記하여야 된다 하며 조선문법은 조선 본토어만 사용하기로 목적한다 하는 僻見은 실로 丁口 竹川이라, 여차한 무리의 주장으로써 학생을 敎하였으며 邇來 십년래 조선문법을 學한 학생은 오직 기로에 陷하여 도리어 귀찮은 감정을 起하며 문법의 원리 원칙은 하나도 不知하게 된 것 같더라.⁵⁾

맞춤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졌다. 안확은 맞춤법을 “편리한 방법 또는 민중 전체를 위하여 정하자” 했음에 대하여 주시경은

4) ‘과학적’ 국어학에 대한 비판으로는 김영환, 「‘과학적’ 국어학의 미망」, 『선도문화』 26,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9.

5) 안확, 「조선어 원론」13항. ‘周氏一派의 曲說’, 1922. 이 부분은 외래어를 몰아내려는 주시경 학파를 겨냥한 것이다. 『자산 안확 논저집』 2권 244쪽. 인용된 본디글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었지만 뜻이 잘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자를 그대로 두었다.

“세종식으로 복고하자”고 했다.⁶⁾ 급진적 맞춤법 개량론을 잠재우고 전통적인 맞춤법을 큰 수정없이 쓰기를 주장한 그는 ‘이론’보다는 ‘실용’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然이나 新奇를 好하여 實地 影響은 不顧하고 普通人의 不可解할 新字를 獨行코자 함은 不可한 일이니 尙學 學者는 科學的 利益을 爲하여 實用上 損害를 不顧함이 큰 弊端이라.⁷⁾

또 안확은 ‘언문’에 낮추는 뜻이 없으므로 ‘한글’이란 새 이름을 부질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은 일찍부터 가졌던 듯하다. 이미 1926년 말에 발표된 「조선어 연구의 실제」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감정을 버리고 그 진리치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이 정도니 가령 언문이란 명사의 어원이 자비(自卑)에서 나온 것이니 언문이란 말을 피하고 정음 또는 본문이라 하자 하는 생각 같은 것이 그런 예라.

한글이란 새말이 필요없다는 결론은 ‘감정을 버리고 그 진리치를 과학적으로 연구함’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특히 우리 관심을 끄는 표현은 ‘감정을 버린다’와 ‘과학적 연구’이다. 이는 일본에 소개된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주시경과 조선어 학회에 비판적이었던 경성제대에 소개된 ‘과학적’ 국어학과 많은 점에서 연속적이다.⁹⁾ 안확이 ‘언문’의 의미에 대해 내세웠던 주장도 오랫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주장이 한 세대 전부터 되살아나는 듯이 보인다. 안확의 ‘언문’ 의미 해명을 이기문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6) 이기문, 「안자산의 국어연구」, 『주시경 학보』 4집, 탑출판사, 1988, 94쪽.

7) 「조선어 원론」 가운데 ‘표기법 개량의 태도’(논저집 2권 243~244쪽 참조) 그가 추구했던 ‘과학적’ 국어학의 요구를 스스로 여기고 ‘실용성’을 내세우고 있다.

8) 안확, 『동광』 8, 동광사, 1926, 56쪽.

9) 김영환, 「과학적 국어학 비판」, 『한글』 252호, 한글학회, 2001.

오늘날은 ‘한글’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언문’의 본의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나, 자산의 해석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¹⁰⁾

여기에 언급된 ‘언문의 본의’는 안확이 밝힌 입말을 적는 글자를 가리킨다. 이기문이 주시경에 비판적인 것은 ‘언문’의 의미만이 아니었다. 그는 『주시경 학보』 4집 「독립신문과 한글문화」에서 『독립신문』의 한글만 쓰기를 주도한 사람이 주시경이 아니라 서재필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으나 근거 없음이 드러나기도 했다.¹¹⁾ 이기문이 안확의 언문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주시경 비판을 핵으로 삼는 ‘과학적’ 국어학의 일부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언문’의 뜻-최만리의 상소문

‘한글’의 등장은 ‘언문’이란 이름의 낮추는 뜻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오랫동안 ‘언문’은 한글을 가리키던 옛 이름이며 낮추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제까지 나온 많은 연구서와 사전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하였다.¹²⁾ 문세영 『조선어 사전』, 1947년 이운재 『조선말 표준사전』, 1929~1957년 『큰사전』에서도 이런 뜻이 반영되었고 현대의 우리나라 사전들은 뜻풀이를 그대로 옮겨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나 일본에서 낸 사전도 이런 뜻풀이가 나타난다. 언문에 낮추는 뜻이 있었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거의 주시경을 잇는 사람이다.¹³⁾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최만리의 상소문이다. 이 상소문은 선비의 통념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언문’의 낮추는 뜻은 최만리의 상소문에 폭포처럼 쏟아진다.

10) 이기문, 「안자산의 국어연구」, 『주시경 학보』 2호, 탑출판사, 1988, 92쪽.

11) 김영환, 『한글철학』, 한국학술정보, 2012, 215~216쪽 참조.

12) 이기문에 따르면 김윤경, 『조선문자급 어학사』, 1938, 최현배, 『한글갈』, 1942에서부터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기문, 앞의 논문, 92쪽, 주 11) 참조.

13)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에서 ‘한글을 전에 일컫던 말’로 뜻을 매겼다. ‘과학적’ 국어학을 추구한 그는 이런 전통에 동의할 수 없었다.

언문짓기는 사대모화에 어긋난다. 중화를 버리고 스스로 오랑캐가 되어 문명의 흠이 된다. 천하고 상스럽고(鄙諺) 쓸모없는 글자를 만든다. 이제부터 언문만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면 한자 공부에 힘쓰지 않아 학문에 방해가 된다. 관리들이 사리판단에 어두워질 것이다.¹⁴⁾

이러한 언문에 대한 험담들은 가장 훌륭한 글자로 예찬받는 한글을 왜 수백 년 동안 돌보지 않았는지 설명한다. 여기에는 최만리가 ‘언문’의 의미와 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

옥사(獄辭)와 같은 것(중략)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直書其言)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모두 쉽게 알아듣게 되어서 억울함을 품게 될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언문은 문자와 전혀 관계가 없고 오로지 거리에서 주고받는 말만을 쓰기 위한 것이다.¹⁵⁾

즉 ‘언문’은 말하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는 글자이고 거리에서 주고받는 말을 적는 글자이다. 이런 생각은 ‘나날말’이라는 ‘諺’에 대한 사전적 뜻때 김과도 일치한다.¹⁶⁾ 홍현보의 『언문』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¹⁷⁾

3) ‘언문’의 사전적 의미

‘언문’의 사전적 의미는 안확이 주시경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훌륭히 해명되었다. 안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4) 우리 글자뿐만 아니라 우리말을 낮추어 보는 표현에 ‘鄉語’, ‘俚語’도 있었다.

15) 而況 諺文與文字 暫不干涉, 專用委巷俚語者乎

16) 여기서 최만리는 조선이 작은 중화라는 사상을 전제하고 있다. 문명이란 중국을 닮음이며 중국 것과 다른 문물은 오랑캐라는 증거이다. 최만리는 한결같이 ‘중화의 제도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여진, 서하, 몽골, 티벳 등은 오랑캐 나라이니 중국과 다른 글자를 갖지만 조선은 문명한 나라로서 이들과 달라야 한다. 중국과 다른 독자적 글자를 갖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오랑캐가 되는 것이다. 『중용』에 나타나는 ‘書同文’을 여기는 것이었다. 또 최만리는 여기서 문자를 배우는 사람은 관리가 되려는 선비임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있다. 오늘날처럼 모든 사람이 읽고 쓰기를 배우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17) 홍현보, 『언문』, 이회, 2019, 548쪽.

최초에 세종대왕이 흥정하기는 훈민정음이라 題하였으나 실제로는 언문이라 하였다. 후일에 혹 반절이라 함도 있으나 항구통(恒口通) 하야 온 것은 언문이라 한 것이다. 고로 언문이라 함은 고대인의 성명과 如한 것이니, 후인이 그것을 變作한다기는 심히 괴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 내 들음에 諺의 字義가 야비함으로써 그를 피하여 雅로 換하자함이라 하니 제일 불통의 意思라. (중략) 諺은 곧 文記語가 아니요, 口音語라 함이요. 又是 聖人의 特訓이 아니요 민중의 격언이라 함이라. 此 兩義에 憑하여 언문의 본의를 解하면 표음문자로서 사회일반에 通한 평민적인 문자라 한 것이다.¹⁸⁾

‘諺’은 글자 그대로의 뜻에 야비하다는 뜻이 없다는 게 안확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사전의 뜻풀이를 평면적으로 따른 데서 추상적으로 생각한 데서 오는 결론이다. 조선과 같은 사회에서 맥락적 의미는 진서(진문)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 중세 사회적 맥락에서 나날말과 학문 언어는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언문’은 학문과 교육의 문자가 아니었다. 학문과 교육의 문자는 변함없이 한자 한문이었다. 한글의 대중적 실용적 쓰임새가 늘어나도 이런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 국가의 공식 기록은 전적으로 한자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

‘언문’이란 표현이 『실록』에서 처음 쓰인 세종 25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쓰였다. 다음으로 세종 26년 2월 16일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라’는 임금의 명령에서 쓰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입말, 나날말을 적는 글자라는 뜻의 ‘언문’이 쓰였다.

‘언문’은 글말, 진서(문)과 달리 입말(방언, 리어, 조선어)을 그대로 적을 수 있는 글자로 생각하고 있다. 입말은 곧 조선어, 조선 토박이말이란 뜻으로 될 수 있다. 따라서 ‘언문’은 조선글자를 가리키는 홀이름이 아니라 두루 이름씨라고 해야 한다.¹⁹⁾

18) 안확, 「언문 명칭론」, 『정음』 26호, 조선어학연구회, 1938.

19) 따라서 안확이 ‘언문’이 고대인의 이름과 같은 홀이름이라 본 것은 오류이다.

조선 선비가 일본의 가나를 ‘언문’이라고 부르는 다음과 같은 좋은 보기가 있다.

국법은 귀천 남녀를 막론하고 6, 7살부터 언문을 가르치는데 이름을 ‘가나’라고 하며 공사의 문서는 모두 이 ‘가나’를 씁니다.²⁰⁾

조선 선비에게 말하는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는 모두 ‘언문’이었던 셈이다. 최만리 등의 상소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세종도 ‘언문’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이때는 ‘언문’이 낫추는 뜻이 없는 중립적인 뜻으로 쓰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쓰임새가 곧 낫추는 뜻으로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언문’에 줄 수 있는 의미의 깊이와 넓이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언문이란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가치 평가에 물들지 않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는 추상적 차원에서만 있을 수 있다. 최만리에서는 그 부정적인 뜻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가장 오래된 한글 비석인 「영비」²¹⁾에서도 한글은 글자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녕흔비라 거운 사르믄 화를 니브리라. 이논 글 모르는 사람다려 알위 노라.

여기서 ‘글’이 한자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언문은 글(자)가 아니었다. 최만리에게도 문자와 닮은 점이 있는 이두는 용납되지만 한글은 닮은 점이 없어 부당한 것이었다.

20) 『순조실록』 9년(1809) 12월 2일(정해) “國法無論貴賤男女, 自六七歲, 教之以諺文, 名之曰 ‘假名’, 公、私書盡用假名”。 ‘중국, 부처’ 등도 홀 이름으로 아는 경우가 많으나 두루 이름 쓰다.

21) 1536년 세움. 보물 제1524호(노원구 하계동 산12)

3. '언문'의 의미에 대한 논란

1) 안확- '과학적' 국어학의 선구자

널리 알려진 '언문'의 의미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론을 편 사람이 안확이었다. 일반적으로 안확은 자신이 획득한 서양의 일반 언어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국어 연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다.²²⁾ 일찍이 조선에 국어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그는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조선어의 본질에 관하여 논설하였다고 자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²³⁾ 그는 일반 언어학에 기반을 두지 아니한 언어 연구는 '과학적'이 아니라고 여겼다.²⁴⁾ '과학적'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가능한 한 실재 자료에 의지하는 실증적 방법과 여러 언어의 예를 견주어 설명하는 대조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²⁵⁾

안확은 서울대 이희승과 이승녕의 '선구자'다. 이희승이 국어 연구를 위해서는 언어학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안확을 통해 일본 언어학이 조선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⁶⁾ 이희승은 국어학을 '제대로',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면 언어학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²⁷⁾ 문제 의식과 결론마저 공통점이 많다.²⁸⁾

안확은 주시경의 주장에 일찍부터 반론을 펴고 주시경을 틀린 이론, 불합리한 이론을 주창한 사람으로 몰고 '언어학을 알지 못한 사람'이란 평하였다.

혹자는 현대 수만의 외래어를 일체 폐지하고 고대어를 사용하자는 曲
論 불합리설을 唱하므로 尙今까지 진정한 언어학자가 無하여 신성한 조

22) 정승철, 「자산 안확의 생애와 국어 연구」, 『진단학보』, 진단학회, 2012, 255쪽.

23) 이기문, 「안자산의 국어연구」, 『주시경학보』 2집, 탐출판사, 1988, 99쪽. 주석18)을 보라.

24) 정승철, 앞의 논문 255쪽.

25) 위의 논문, 255쪽. 고전적 역사 비교언어학과 조금 차이가 있다.

26) 김영환, 『한글철학』, 한국학술정보, 2012, 136쪽. 『한글새소식』, 한글학회, 1998.9 최초 발표.

27) 위의 책, 136쪽. 주시경학파의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학문적'이지 못함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28) 주시경과 조선어 학회와의 대결이란 문제 의식에서 공통적이고 '언어학'을 내세워 조선어 학회를 비판하고 '과학적'을 '민족주의적'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킨 점에서 공통적이다.

선어으로써 蠻語가 되게 하고 오히려 외국학자에게 其연구를 讓계 되었나
니 어찌 통탄치 아니하리오.²⁹⁾

주시경이 언어학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은 그가 일본에 도입되었던 역사
비교 언어학을 믿고 하는 말이었다.³⁰⁾

언어는 항상 변화하여 부지(不止)하나니라. 언어는 이갓티 변화함은
퇴보가 안이오 발달되는 것이어널 고어를 재활하여 사용코자 하는 이가
잇스니 실로 언어학을 不知하는 자라 할지라.³¹⁾

… 근래 문법론자의 설명은 과학적이 안이오.³²⁾

‘언문’이란 명사의 어원이 자기를 낮춤에서 나온 것이니 언문이란 말을
피하고 정음 또는 본문이라 하자’는 생각이 바로 그런 본보기라고 비판하
였다.³³⁾ 경성제대 ‘과학적’ 국어학이 나오기 전이었다. ‘언문’을 버리고 ‘한
글’을 지을 필요가 없었고 ‘언문’을 버리고 ‘한글’을 선택한 게 민족주의에
치우친 탓이라는 말도 된다.

안확은 현실적으로 ‘언문’에 낮추는 뜻이 있다고 인정했다. ‘언문’에는
처음에는 낮추는 뜻이 없었으나 쓰이는 동안 비하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했
다. 세종이 『훈민정음』에서 창제 목적을 하급민민의 소통을 위한 것이라
하였다. 부녀자와 무식한 하류 계급만 사용한 데서 비하의 경향이 생기고,
오늘날 학술계에서도 고급 지식층은 외국어를 배워 원서를 읽는 것과 같이
과거에도 한문 아닌 고등 학술을 회득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 하였다.³⁴⁾

29) 안확,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4, 조선유학생학우회, 1915.

30) 그가 얼마나 역사-비교 언어학을 깊이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당시 언어학을
표준으로 주시경을 비판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소쉬르의 『일반 언어학 강의』는 1929년에
야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31) 안확, 「조선어 원론」, 한일서점, 1922.

32) 안확, 「조선어 연구의 실제」, 『동광』 8, 동광출판사, 1926, 58쪽.

33) 위의 논문, 57쪽.

34) 안병희, 「안확의 생애와 한글 연구」, 『어문연구』 31집, 일조각, 2003 봄, 333쪽.

사전적으로는 낮추는 뜻이 없지만 현실적으로 낮추는 뜻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변한 뜻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안확의 주장이 앞뒤가 어긋남을 볼 수 있다. 동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문’의 이러한 뜻 변화는 ‘진문’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것이다. 문명어 학문어와 나날말이 이원적으로 분리된 중세 사회에서 나날말을 적은 언문은 처음부터 격이 낮은 글자였다.³⁵⁾ 격이 낮은 글자였기에 부녀자와 하층민의 글자로만 쓰였다. ‘諺語’, ‘諺文’은 문명어 학문어가 아닌 나날의 말이나 그것을 적는 글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다.³⁶⁾ 이런 맥락적 의미에 눈을 뜨지 못한 그는 이런 표현에 본디 낮추는 뜻이 없었다고 보고 사전적인 뜻풀이에 매달려 그냥 옛날 표현을 그대로 쓰면 된다고 말한 셈이다. 물론 한문을 숭상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언문’의 낮추는 뜻이 자연스럽게 잊혔을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주장이다. 주시경 학파와의 대결에 집착한 안확은 잘못된 논거에서 어쩔거나 가능한 주장을 하였다.³⁷⁾

그는 또 「언문 명칭론」에서 일본에서도 한자를 마나(眞名)라 하고 고유문자를 가나(假名)라 하지만 아무도 그 가나란 명칭을 개정하고자 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³⁸⁾

그러나 일본과 조선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무척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일본은 조선과 달리 글말(한문)과 입말(언문)의 대비가 엄격하게 이분법적이지 아니다. 한문 훈독과 가나-한자 혼용문의 전통이 체계적으로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가나가 일찍부터 쓰기 체계에 자리잡았다는 점이 조선과 달랐다. 한자 한문에 대한 숭배가 강하지 않은 곳에서는 ‘가나’에 낮추는 뜻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냥 평범한 나날의 말을 적는 글자일 뿐

35) 반면에 성현의 문자인 한자로 된 경전을 읽어야 선비는 사리를 밝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최만리의 상소문에 “(관리가)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대하는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라는 표현이 보인다.

36) 구한 말에 나온 고종의 국문조서도 사대-조공 체제의 붕괴, 과거제 폐지로 문명어로서의 한문의 폐지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37) 주시경 학파에게는 ‘한글’이란 새 이름을 짓는 게 더 효율적인 길로 보였으리라.

38) 안병희, 「안확의 생애와 한글 연구」, 『어문연구』 31집, 일조각, 2003, 334쪽.

이다. 「조선어학자의 오해」³⁹⁾에서 주시경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고어 사용론, 문법이론, 맞춤법 개량을 논박함으로써 이른바 ‘주씨일파’와 반대되는 주장을 천명하였다. 『조선어 원론』의 「주씨일파의 곡설」이란 항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받침에 초성을 쓰거나 된소리의 표기에 각 자병서를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⁴⁰⁾

2) 이기문 이후-안확 주장이 번져나감

‘언문’이 낮추는 뜻이 없었다는 안확의 주장은 이기문의 「안자산의 국어 연구-특히 그의 주시경 비판과 관련하여」⁴¹⁾를 통하여 되살아났고 그 뒤로도 꾸준히 번져 갔다. 이제 우리는 그 번짐을 대표하는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하려 한다.

이상혁도 낮추는 뜻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上親制諺文二十八字”라는 실록 기록과, 언문청을 설치했다는 기록에서 보이듯이 임금이나 관청에 대해서도 ‘언문’이 쓰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⁴²⁾

더 나아가 심재기는 ‘언문’이 ‘정당한 명칭’이며 ‘사랑받아 온’ 표현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언문’은 훈민정음 창제 때부터 훈민정음을 지칭하는 보편적인 명칭이었다. 이것은 한문에 대응하는 용어이면서 훈민정음의 본 뜻을 명확하게 살리는 명칭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여 한문이 글말에 쓰인 문자임을 뜻한다면 언문은 입말에 쓰이는 문자라는 뜻을 담고 있었다. 개화기에 민족자주 의식이 싹트면서 ‘언문’이라는 낱말에서 풍기는 낮춤의 느낌을 씻어내기 위하여 ‘국문’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되기는 했으나 ‘언문’이야말로 언문일치(言文一致) 용 문자라는 정당한 명칭이었던 것이다. ‘언문’이란 낱말은 오히려 ‘국문’이란 낱말보다 더 친숙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낱말이었다.⁴³⁾

39) 안확, 『학지광』 10, 조선유학생학우회, 1916, 334쪽.

40) 이런 문제는 ‘언문’이나 ‘한글’의 뜻과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41) 이기문, 『주시경학보』 2, 주시경연구소 탐출판사, 1988.

42) 이상혁, 「언문과 국어의식」, 『국어국문학』 121호, 국어학회, 1998, 63쪽.

이런 생각은 물론 잘못이다. ‘언문’의 중세적 맥락을 잊어버린 채 근대적 관점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상혁은 『조선후기 훈민정음연구의 역사적 변천』(2004)에서 ‘언문’에 부정적인 뜻이 없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폈다.

최만리의 경우는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문의 표현을 답습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연산군의 경우는 그가 언문에 대한 탄압을 명하기는 했으나 연산군 자신도 직접 악장을 언문으로 지은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언문’이란 문자자체는 부정적 대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최세진의 『훈몽자회』 권두 「범례」에서 한글을 ‘언문자모’라고 부르고 있고 한문을 배우기 위해 언문을 먼저 익히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는 그의 제안을 보아도 그가 한글을 바라보는 입장은 사뭇 긍정적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신경준, 정동유, 유희 등) 조선 후기에 한글을 바라보는 연구자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늘 사용하는 우리의 글, 가치 중립적이며 부정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우수한 표음문자이자 민족 고유의 글로서 인식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초기 근대지향적인 의식이 나타나고 있다.⁴⁴⁾

위 주장들은 모두 잘못으로 보인다. 평균적인 유교 지식인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경우에 ‘언문’이 중립적 긍정적으로 쓰였지만 묵은 일반적인 통념이 쉽게 바뀔 리도 없었다. 단편적인 증거에서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한 주장이라고 본다. 반대 증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세진의 경우 한자 학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언문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언문’에 대한 예찬도 ‘진서’로 써 놓았다. 그들이 ‘언문’으로 된 저서를 남기지도 않았다. 나라의 공식 문서는 죄다 한문으로 되어 있

43) 심재기, 『서재필과 한글 발전 운동』, 서재필 기념회 역음, 2003, 266~267쪽.

44) 이상혁, 『조선후기 훈민정음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2004, 77~78, 85쪽에서 각각 인용.

있고 학문과 교육은 한문 읽고 쓰기를 배우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이른바 ‘실학’ 시대에 이르러도 우리글자와 말에 대한 의식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주자학의 화이론을 극복했다고 평가받기도 하는데 그런 그조차 우리말을 ‘오랑캐 풍습’이라며 부끄러워했다. 그는 연행에서 만난 청나라 유생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사모하고 존송하며 의관문물이 중화를 방불케 하여 예부터 중국에서 ‘소중화’라고 부르지만 언어만은 아직도 오랑캐 풍속(夷風)을 면치 못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⁴⁵⁾

‘언문’이 중립적이라는 논의는 그 뒤에도 자꾸 번져 갔다.

특히 훈민정음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문’이라는 명칭을 즐겨 사용하였다고 하여 ‘언문’이라는 명칭이 마치 자기 비하적인 명칭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으나 그러한 근거를 입증할 당대의 논거는 전혀 없다.⁴⁶⁾

김슬옹은 ‘언문’에 낮추는 뜻이 있느냐에 관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언문이 비칭이나 통칭이냐의 논쟁은 조선시대 글말 사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비칭의 주요 맥락은 근대이전에는 비주류 문자로서의 위상 때문이지만 근대 이후에는 문자 창제의 이상을 담은 ‘훈민정음’과 근대 민족주의자의 이상을 담은 ‘한글’이라는 명칭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언문’은 더욱 비칭화되었다. 통칭론은 실질적 사용 맥락에서

45) 홍대용, 『담헌서』 「외집7권」, 연기(燕記). 박제가는 『북학의』에서 이보다 더 극단적인 말을 하였다. “중국어는 문자의 근본이다. (중략) 온 나라 사람이 본래 사용하는 말을 버린다고 해도 안 될 이치가 없(중략) 그런 연후에야 ‘이(夷·오랑캐)’라는 한 글자를 면할 수 있고 수천 리 동국(東國·조선)에 저절로 주·한·당·송의 기풍이 나타날 것이다. 이 어찌 크게 상쾌한 일이 아닌가.”

46) 이상규, 「훈민정음 연구의 미래」, 『훈민정음 연구의 현황과 미래』, 한글학회, 2018, 21쪽. 본디글은 유창균 님을 인용하면서 비판한 글인데 조금 고쳤다. 최만리의 상소문에 나타난 모화사상을 진지하게 생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념화된 비칭론을 비판한다. ‘언’에 담겨 있는 ‘전통성’ 입말성 백성 민간 등의 의미로 보나 그 당시 실제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쓰임새로 보나 비칭이 아니란 것이다.⁴⁷⁾

‘전통성’ 입말성 백성 민간 등의 의미는 비칭론을 지지하는 증거이지 통칭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통칭론은 오류이다.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쓰임새’도 한문의 공식 지위를 위협하지 않는 한 용인되었을 뿐이다. 세종과 최만리가 같은 낱말 ‘언문’을 썼다. 세종에게는 낮추는 말이 아니지만 최만리에게는 낮추는 말이다. ‘언문’을 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낮추는 뜻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어떤 낱말에 깃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미는 개인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언문’의 낮추는 뜻은 한문을 숭상하게 만드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과거제도, 서당, 향교, 서원, 성균관 등 교육제도)을 생각할 때 분명해진다. 조선에서 학문과 교육은 한문으로 된 경전 읽고 풀이하기였다.

홍현보의 『언문』은 ‘언문’이 낮추는 뜻이 없었다는 가장 최근의 논의로 보인다. 그는 방대한 자료 조사를 기초로 ‘언문’에 낮추는 뜻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언문’이 처음으로 쓰인 곳은 세종 25년 12월 30일 기사이다. 『훈민정음』이 나오는 3년 동안 ‘언문’만이 줄곧 쓰이다가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다시 ‘훈민정음’이란 말이 등장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전체 원문에는 훈민정음이 10회 기록되어 있고, 정음이 27번, 언문이 151번, 언(諺)이란 글자는 1,156번이 나온다.⁴⁸⁾ 특히 언문이란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면 세종 자신을 비롯하여, 최만리 등 최고위급 유학자들에서부터 중궁전이나 부인 등 모든 계층에서 두루 쓰고 있으나 ‘훈민정음’은 세종과 세조를 제외하고는 성종, 정조 때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한 말이다. 이것은 ‘훈민정음’이나 ‘정음’이라는 이름이 일반 언중에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반면

47) 김슬옹, 「『조선왕조실록』의 한글 관련 기사를 통해 본 문자생활 연구」, 상명대학교 문학 박사 학위논문, 2005, 62~63쪽.

48) 홍현보, 『언문』, 이회, 2019, 422쪽.

‘언문’이나 ‘언(諺)’은 조선시대 내내 ‘새 글자’를 말할 때 예외 없이 부른 이름임을 알 수 있다.⁴⁹⁾

반면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은 ‘언문’처럼 1443년 12월 30일 창제 기록에 그 이름이 처음으로 나온다. 1443년부터 1446년 반포 이전에는 이외의 어떤 기록에도 훈민정음이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로서는 낯선 이름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종임금이나 신하들 어느 누구도 ‘훈민정음’이란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세종실록’에서 보면, 1444년 2월 최만리 등의 상소에서나, 그 상소 때문에 세종이 그들을 불러 나눈 대화에서도 전혀 ‘훈민정음’이란 말이 없다. 오히려 세종 자신부터 늘 ‘언문’이라고 칭하였고, 신하들의 말에는 수없이 ‘언문’이라 부르고 있다. 이런 ‘언문’의 광범위한 쓰임새와 ‘훈민정음’의 극히 드문 쓰임새는 ‘언문’에 낫추는 뜻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닐까?

세종이 한글 창제를 알린 뒤 몇 달 동안 신하들과 엄청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논쟁 중에는 언제나 ‘언문’이라 했지 ‘훈민정음’을 낫추어 부른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새 글자를 부르던 본래의 이름이었다는 말이 된다.⁵⁰⁾

이런 논의는 앞에서 언급된 ‘언문’ 통칭설에 해당한다. 세종이나 『훈민정음』 지은이는 언문을 부정적인 뜻으로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쓰임새가 곧 ‘언문’이 비칭이 아님을 말하지 않는다. 한글을 적극적으로 쓴 ‘언해’에도 한글을 보조 수단으로 여기는 생각이 드러나 있다. ‘언해’는 번역과 거리가 있고 대중용이라기보다 경전의 표준적 해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⁵¹⁾ 잘 쓰이지 않은 새 이름 ‘훈민정음’도 다수가 부정적으로 쓰는 ‘언문’을 의식하여 새로 만든 말이라 할 수 있다.

‘언문’을 시각적 형태로서만 본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뜻으로 쓰일

49) 홍현보, 「우리 사전의 왜곡된 ‘언문’ 뜻풀이에 관한 연구」, 『한글』 298호, 한글학회, 2012, 65쪽.

50) 홍현보, 앞의 책, 293~294쪽.

51)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출판의 문화사』, 천년의 상상, 2014, 159쪽.

수 있다. 이 경우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라 볼 수 있다. 선비들은 대부분 부정적 감정을 가졌다. 인위적으로 붙인 ‘훈민정음’이란 낱선 이름을 임금이나 신하들이 실제적으로 부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

4. 낱춤말 ‘언문’

1) 거룩한 문자와 언어-한문과 라틴어

언문은 조선 글자만 가리키는 홀이름(고유명)이 아니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강항은 “왜인 가운데 글에 능하다는 사람도 단지 언문만을 사용할 뿐이며 문자에 대해서는 전연 알지 못한다.”⁵²⁾고 했다. 1719년 통신사를 수행했던 신유한도 『해유록』에서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언문’으로 쓰며 ‘문자’를 아는 이가 드물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은 가나를 많이 쓰므로 한문 배우기에 온 힘을 쏟는 조선과 달랐다. 여기서 ‘언문’은 일본의 가나를 가리켰다. 이때는 중립적인 뜻이 우세하며 그냥 입말을 적는 글자란 본디 뜻에 잘 들어맞는다. 이로써 보면 ‘언문’은 홀이름(고유명)이 아니라 두루 이름씨임을 확인할 수 있다.

‘언문’을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지배층인 유학자들이 부정적인 뜻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런 이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에 보이는 훈민정음 예찬은 격렬한 한글 반대 세력인 선비를 설득하려는 데서 나왔다. 정동유나 유희의 언문 예찬도 한자를 배제하지 않았다. ‘늘 쓰는 나날의 말을 그대로 적는 글자’라면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말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글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세에는 한문과의 관계에서 낱추는 뜻을 갖고 있었다. ‘거룩한 언어’는 나날말과 달리 따로 있어야 했다.

나날말을 적는 글자는 중세적 맥락에서는 속되고 한 지역에 치우친 말로

52) 박상휘, 『선비, 사무라이를 관찰하다』, 창비, 2018, 207쪽.

서 낮추는 뜻이 있었다. 거룩한 문명의 언어, 학문의 문자인 한문자와 대비된다. 최만리는 상소문에서 한문자를 ‘성현의 문자’라고 하였고 이를 알아야 사리 판단에 밝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언문은 ‘참 글자, 진리를 담은 글자(진서, 진문)와 대비된다. 선비의 통념으로는 언문은 ‘문명, 학문, 정치에 쓸모없는 글자’였다. 낮추는 뜻이 있음에 틀림없다.⁵³⁾

특정 문자나 언어가 거룩하다는 생각은 조선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다. 본디 ‘언문’은 ‘진문’과 대비되어 경전이 상징하는 문명이나 학문과 관계없는 나날의 말을 적는 글자였다. 중세 사회에서 학문과 교육의 언어가 아닌 나날의 말은 속되고 우아하지 않다는 뜻을 갖게 된다. 라틴어를 보면 분명해진다. 성서와 예배의 언어로서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였다. 라틴어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이상과 가치를 가진 슬기의 샘이었다. 그 시절에 영어나 독일어도 물론 ‘속된’(vulgar, 俚語) ‘토착어’(vernacular, 方言)였다. 성서 영역의 선구자인 위클리프나 틴들은 이런 토착어를 알보는 생각을 일찍부터 떨쳐버리고 ‘속된’ 영어로 번역하였다. 루터도 ‘신성한’ 라틴어를 버리고 ‘속된’ 토착어를 이용하여 성서를 번역하였다. 이런 흐름은 거룩한 라틴어-속된 지역어(방언)란 생각 자체를 허물었다. 이런 생각이 깨지자 영어나 독일어가 속되다는 생각 자체가 낫설게 되었다. 동로마에서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다. 라틴어가 공용어였던 서로마에서 라틴어가 신성하다는 생각은 나타났으나 동로마에선 헬라어가 신성하다는 생각은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나날말로서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⁴⁾ 언어나 문자가 ‘거룩’해지기 위해 나날에서 쓰이지 않거나 쉽게 배울 수 없게 쓰기가 복잡해야 했다.(나날말이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도 보편적이었다) 어떤 언어나 문자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지배 계급이 문제의 뿌리다. ‘참 문자, 진리의 문자(眞書, 眞文)’는 선비 또는 사대부의 기득권 확립에 필수적이었다. 선비는 자신을 ‘독서인, 식자인(識字人)’으로 스스로를 불렀다. 중세 서유럽에서는 라틴어를 쓸 수 있는 성직자 계급이 그런 생각

53) 그렇지만 ‘언문’에 긍정적인 뜻이 담길 수도 있었다.

54) 앤더슨,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36쪽.

을 부추겼다. ‘알아 듣지 못할 말을 하는 이들’(barbarian)이 로마인을 지배하게 되자 라틴어도 입말로만 쓰이면서 점차 죽은 언어가 되다시피 했다. 겨우 수도원에서 세속화된 형태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칼 대제에 의해 서유럽 전체의 교회 언어, 외교 언어가 되었고 중세 대학에서 교육과 학문의 언어가 되자 거룩하다고 여겼다.

조선의 선비에게도 한문은 거룩한 글자였다. 최만리 등은 한자는 ‘성현의 문자’이고 이를 알지 못하면 관리가 사리 판단에 어두워질 것이라고 보았다. 그 상소문에서 ‘언문’은 정치와 학문에 방해되며 문명의 큰 흠이라고 하였다. 한자는 문명과 학문을 상징하며 슬기의 샘이다. ‘언문-진서’의 이분법을 전제한 표현이다. ‘언문’은 문명, 학문, 정치와 상관없는 나날말을 적는 글자이다. ‘언문’이 나날말을 적는 글자이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으로 글자 형태를 가리키면서 아울러 한문과 대비하여 낮추는 뜻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언문’의 낮추는 뜻이 모든 경우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문은 라틴어와 맞먹는 자리를 차지하지만 중요한 점에서 라틴어와 같지 않다. 라틴어는 어쨌거나 유럽 언어들에 대하여 거의 동등하게 외국어다. 그러나 한문은 엄연히 고전 중국어다. 일본도 훈독법이 발달하여 “『사기』든 두보든, 이백이든, 어느 누가 읽더라도 마찬가지다. 즉 중국의 고전은 훈독법에 의하여 일본어 영역으로 들어왔으며, 일본의 고전을 읽는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게 되었다”⁵⁵⁾ 조선에서는 한문을 중국식으로 읽어야 작은 중화가 될 수 있으므로 일본보다 한문 배우기에 몇 배나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다. 한자는 중국만의 문자가 아닌란 주장은 일본에만 맞는 말이다.⁵⁶⁾ 이제 우리는 한문 글자를 죄다 버렸다. 한국서 지난 100년 동안의 말글 변화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근본적이었다.

2) 낱말 의미론에서 본 ‘언문’의 뜻

다음으로 낱말 의미의 일반론에서 보아도 ‘언문’에는 낮추는 뜻이 있었

55) 시라카와 시즈카, 심경호 옮김, 『한자, 백가지 이야기』, 황소자리, 2005, 358쪽.

56) 김영환, 「한자도 우리 글자인가?」, 국제뇌교육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17, 354쪽.

다고 할 수 있다. ‘부자’라는 말을 보자. 1988년에 나온 『현대 조선말 사전』은 (넓은 사회에서) 착취와 협잡으로 굶어모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호화롭게 진탕치며 살아가는 자로 뜻을 매겼다. ‘부자’에 대한 긍정적인 뜻을 빼고 부정적인 뜻으로만 쓰기를 규범화하였다. ‘부자’의 중립적이고 탈맥락적인 의미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다.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가, 모은 재산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담고 있지 않다. 복벽 사전의 뜻풀이는 빈부 격차가 심하고 재산을 불리는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곳일수록 더 크게 와 닿는다. 사람에 따라 ‘부자’는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그 담담한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자체로는 낮추는 표현도 높이는 표현도 아니다. ‘언문’도 이와 같다. 한문을 숭상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낮춤의 뜻을 지니게 된다. 언문은 언문이다. 다만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천한 말을 적는 글자가 된다. 어떤 낱말에 낮추는 뜻이 있나 없나를 이분법적으로 따질 수 없다.⁵⁷⁾

낱말의 의미에 변하지 않고 높이거나 낮추는 가치 평가가 있다고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뜻으로 썼는지 긍정적인 뜻으로 썼는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모든 낱말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 평가도 늘 따라 다닌다. ‘과학적’도 ‘민족주의적’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늪은이, 늪, 계집, 문둥병’ 등이 부정적인 뜻이 자꾸 굳어진 것은 이 말을 계속 쓰지 않고 한자말로 바꾸고 한자말을 또 영어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정철의 훈민가에서 보듯이 ‘늪은이’에는 낮추는 뜻이 없었다. ‘노인’이 들어와 ‘늪은이’를 낮춤말로 만들고, ‘시니어/실버’가 들어와 ‘노인’은 가난하고 쓸쓸하다는 뜻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내→처→와이프’에서도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다. ‘문둥병’이 ‘나병’으로 또 ‘한센병’으로 바뀌는 것과 같다. 부정적인 현실이 있는데 말을 바꿈으로써 가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3시, 3D직업, 3D프린터’에서 ‘3’을 ‘세, 삼, 쓰리’로 읽는 데서 오랜 우리의 문명 의식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

57) ‘바보’도 늘 낮추는 뜻으로만 쓰이지 않는다. ‘바보’ 노무현의 경우에는 존경과 친근함이란 뜻을 담고 있다. 사전적 중립적 뜻과 정반대로도 쓰인다. 같은 낱말에 정반대의 가치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늪’에도 본디 낮추는 뜻이 없었다.

문명스런 것은 중국 것이었다가 미국 것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언어 현상에서도 바깥 것을 숭배하며 나를 과시하려는 경향, 남과 구별하여 나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바람에 앞섬을 볼 수 있다.

‘언문’은 한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뜻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오늘날 처럼 한글만 쓰는 현실이 되었다면 ‘한글’이란 새 이름을 갖지 않았더라도, ‘언문’은 하층민이나 여성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나 쓰는 글자라는 뜻이 옳히고, 가장 체계적이고 쉬운 글자로 알려졌을 것이다. 한 낱말이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다가 긍정적인 뜻으로 변하는 경우는 많다. ‘언문’도 한문을 버린 세계에서는 낮추는 뜻이 사라질 것이다.⁵⁸⁾ 즉 ‘한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었다.

우리에게 언어적 측면에서 근대란 곧 ‘거룩한’ 한문의 권위 깨뜨리기였다.

3) 조선 선비는 왜 한글을 외면했나

다음으로 ‘언문’에 낮추는 뜻(태도)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선비가 이를 한결같이 외면했다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최만리의 상소문에 잘 드러난 것처럼 선비들은 『중용』의 ‘천하동문’으로 표현되는 문명 의식을 갖고 있었다. 즉 ‘작은 중화’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중국과 다른 문자를 갖는 것은 오랑캐가 되는 것이었다. 한자는 문명의 상징이었다. ‘언문’에 낮추는 뜻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왜 선비가 빼어난 글자를 400년도 훨씬 넘도록 거의 돌아보지도 않았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 『실록』은 대비의 ‘언문 교지’마저 전부 한문으로 바꾸어 기록할 정도였고 『승정원일기』에도 한글은 보이지 않는다. 한문 숭배-한글 멸시는 오늘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우리 근대 신문이 한문 숭상 비판은 통렬했다. ‘한문은 늘 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하고 ‘나라에서 내는 명령을 모두 한문으로만 냈다’⁵⁹⁾

58) ‘놈, 계집, 늙은이, 문둥이’도 새로운 어휘 도입 없이 뜻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59) 『독립신문』, 1896.4.7.(창간호) 논설.

대강 한문자나 아는 자는 국문 신문을 맛이 없다 하여 혹은 신문 발송을 정지하라 하며 혹은 청구치 아니한 신문을 발송하니 심히 몰경위하다 하여 도리어 신문사를 책망하니 슬프다 국문 신문을 배척하는 자여.⁶⁰⁾

조선시대에는 한문이 공용어였다. 공적 영역에서 한글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쓰였다.⁶¹⁾ 유교 경전의 언해도 인민이 쉽게 경전을 읽고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경전의 표준 해석을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이는 아마도 과거에서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경전 원문에 토를 달고 낱말 몇 개 옮겨놓았을 뿐이다. 한문과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경서 언해본 역시 읽고 이해할 수 없었다.⁶²⁾ 소설이나 여성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글로 썼다. 소설은 사적 영역의 이야기이며 여성은 사적 영역(가정)의 담당자였기 때문이다. 임금이 인민에게 내린 윤음도 한글로 썼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인민은 공적 영역의 담당자나 참여자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의 선비의 영역이었다. 그렇게 쉽고 효율적인 한글을 외면한 까닭은 사대모화 때문이었다. 문명과 학문, 정치의 담당자였던 선비는 쉬운 글자-언문으로 글쓰기를 한결같이 거부했다. 한문 글자로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책을 썼다. 한글로 된 문화유산은 하층민의 것에 머물렀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서점이라는 게 겨우 생길 정도였다.⁶³⁾ 1552년에 예수회 신부 사비에르는 일본에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이 글읽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사원에서 여자나 젊은이에게 읽기-쓰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⁶⁴⁾ 1710년 경 일본에는 359개의 서점-출판업자가 있었다고 한다.⁶⁵⁾ 그러나 조선에서는 우민화 정책이 성공적이었다. ‘한문은 늘 써 버릇하고

60) 『제국신문』, 1908.11.5. 논설.

61) 김슬옹, 『조선왕조실록의 한글 관련 기사를 통해 본 문자 생활 연구』(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73쪽)에서 백성교화와 실용정책 면에서 한글이 ‘공식 문자’라고 하였으나 권력자의 효율적인 지배를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이 짙었다.

62)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출판의 문화사』, 천년의 상상, 2014, 159쪽.

63) 우리나라 최초의 서점에 대한 기록마저 분명하지 않다. 영조 때 약방과 서점을 겸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계책사(藥契冊肆)가 있었다고 한다.

64) 쓰지모토 마사시 외, 이기원 외 옮김, 『일본 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153쪽.

65)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출판의 문화사』, 천년의 상상, 2014, 397쪽.

국문은 폐'하고 '나라에서 내는 명령과 국가 문적을 모두 한문으로만'내어 '글 모르는 사람을 무단히 바보로 만든다'고 했다.⁶⁶⁾ 책 읽는 공중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인민은 글 읽을 필요가 없었다. 출판은 국가 독점이었고 이는 사상 확일화와 통제에 유리하였다. '거룩한' 문자, 진리의 문자, 진짜 문자는 선비들만의 나라를 세우는 데 좋은 수단이었다. 최현배의 다음과 같은 체험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십년 전 광도 유학 시대에 그곳 고등 사범 학교 부속 박물관에서 논어에 대한 주석서 전람회를 본 일이 있었는데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에 남아 있지 아니하지마는 대략 백여 종 내지 이백여 종이 나 된 듯하다. 그때에 나의, 조선서 논어라 하면 한글해야 관정본(官定本) 하나 밖에 못 보던 눈에 매우 큰 경탄과 깊은 참괴를 느꼈다.⁶⁷⁾

5. 맺음말

'언문'은 우리글자만을 가리키던 홀이름이 아니다. 중세에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였던 것처럼 선비에게 한문은 거룩한 성현의 말씀이었다. '성현의 문자'와의 관계에서 '언문'은 '속되다'는 낮추는 뜻을 갖고 있었다. 최만리의 상소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며 선비의 오랜 통념이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낱말 '언문'에 낮추는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언문을 높이 평가하거나 중립적인 뜻으로 쓰인 경우도 적지 않다. 가치 판단의 성격으로 보아 이런 쓰임새가 낮추는 의미가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한 대상(용어)에 대한 상반되는 평가가 늘 공존한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의미로만 쓰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동문'이라 표현된 문명 의식이나 한문 쓰기를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관료 선발 제도, 교육 제도, 출판 문화와의 관계에서 보아야 '언문'의 낮추는 뜻을 알 수 있다. 한국 근대 신문도 극심

66) 『독립신문』, 1896.4.7.(창간호) 논설.

67) 최현배, 「조선민족 경쟁의 도」, 『동아일보』, 1926.10.7.

했던 ‘언문’ 멸시를 증언하고 있다. 안확은 ‘언문’의 사전적 이해를 절대시하여 역사적 맥락에 전혀 눈을 뜨지 못하였다. ‘언문’을 ‘한글’로 바꾼 것은 비판적 역사 인식에서 나왔다. 안확은 일본에서 유입된 ‘과학적’ 국어학을 내세우며 ‘언문’에 낮추는 뜻이 없었다면서 ‘한글’이란 새 이름이 필요 없었다고 보았다. ‘언문’에 낮추는 뜻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한글을 지식인이 외면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선비의 한글 외면-한문 숭상은 우민화, 사상의 통제-획일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언문’에 대한 안확의 잘못된 주장은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 경성제대의 ‘과학적’ 국어학의 앞선 형태인 안확의 ‘언문’에 관한 주장은 서울대 중심의 연구자들을 통하여 되살아나 계속 번져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우리 근대 국어학의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가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 ‘언문’의 의미에 대한 논의야말로 한글전용 문제, 맞춤법 문제와 더불어 조선어 학회와의 투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한글’에 대한 시비는 그들이 주시경 이래의 근대 국어학이 감정적이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있음을 ‘과학적’ 국어학을 통해 보여주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언문’에 관한 안확의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에서 문제가 많아 곧 잊혔으며, 오늘날 이를 다시 되살릴 이유도 없다. ‘과학적’ 국어학은 주시경 이후 근대 국어학을 부정하면서 비판하였으나 이 비판은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1. 원전

- 『조선왕조실록』
『담헌서』(홍대용)
『학지광』(조선유학생학우회)
『동광』(동광사)
『정음』(조선어학연구회)
『독립신문』, 『동아일보』, 『제국신문』

2. 논저

- 강명관, 『조선시대, 책과 지식이 역사』, 천년의 상상, 2014.
고영근, 『민족어의 수호와 발전』, 제이엔씨, 2008.
김슬옹, 『조선왕조실록』의 한글 관련 기사를 통해 본 문자 생활 연구』, 상명대 박사학위논문, 2005.
김영환, 「'과학적' 국어학 비판」, 『한글』 252호, 한글학회, 2001.
_____, 『한글철학』, 한국학술정보, 2012.
_____, 「한자도 우리 글자인가?」, 『선도문화』 22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7.
_____, 「'과학적' 국어학의 미망」, 『선도문화』 26,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2019.
박상휘, 『선비, 사무라이를 관찰하다』, 창비, 2018.
박승빈,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대한 비판』, 1936.(통문관 복사 간행, 1973)
시라카와 시즈카, 심경호 옮김, 『한자, 백 가지 이야기』, 황소자리, 2005.
심재기, 「서재필과 한글 발전 운동」, 『서재필과 그의 시대』, 서재필 기념회, 2003.
쓰지모토 마사시, 이기원 외 옮김, 『일본 교육의 사회사』, 경인문화사, 2011.
안병희, 「안확의 생애와 한글연구」, 『어문연구』 31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일조각, 2003.
안확, 「조선어의 가치」, 『학지광』 4, 1915.
_____, 「조선어학자의 오해」, 『학지광』 10, 1916.
_____, 「조선어 원론」, 『조선문화사』, 한일서점, 1922

- ____, 「조선어 연구의 실제」, 『동광』 8, 1926.
- ____, 「언문 명칭론」, 『정음』 26호, 1938.
- 이기문, 「안자산의 국어 연구-특히 그의 주시경비판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2집, 주시경 연구소, 탐출판사, 1988.
- ____, 「독립신문과 한글문화」, 『주시경 학보』 4집, 탐출판사, 1989.
- 이상규, 「훈민정음 연구의 미래」, 『국제학술대회-훈민정음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글학회, 2018.
- 이상희, 「언문과 국어의식」, 『국어국문학』 121집, 국어학회, 1998.
- ____, 『조선 후기 훈민정음연구의 역사적 변천』, 역락, 2004.
- 앤더슨, 윤희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 2004.
- 정승철, 「자산 안환의 생애와 국어연구」, 『진단학보』 116호, 진단학회, 2004.
- 최현배, 「조선민족 갱생의 도」, 『동아일보』, 1926.10.7.
- 홍현보, 「우리 사전의 왜곡된 ‘언문’ 뜻풀이에 관한 연구」, 『한글』 298호, 이회, 2019.
- ____, 『언문』, 이회, 2019.

〈Abstract〉

Debate on the Meaning of ‘Eonmun 諺文’

Kim, Yeong-Hwan

Ahn Hwak(1886~1946) had written about 8 books and over 100 articles on the Koreanology in his life.

Among them, 2 books and about 30 articles is the researches on Korean language. He claimed his researches on Korean was ‘scientific’ in contrast with Ju Si-gyeong’s nationalism. In many aspects he strongly opposed to Ju Si-gyeong, the founder of modern Korean linguistics. But his claims are often inconsistent, confusing. The criticism against Ju is ineffective. For example, he claimed the expression ‘Eonmun 諺文 has no derogatory meaning, but it is not the case.’ ‘Eonmun 諺文(vernacular script) contrasts with ‘眞文(true script), the Classical Chinese, sacred language of Sages. The original meaning of ‘Eonmun 諺文(vernacular script) is script for vernacular, not proper name of Korean alphabe, had no derogatory meaning. But in relation with ‘眞文(true script), the Classical Chinese, it became to have derogatory meaning. So Neo-Confucianistic literati refused official use of Korean alphabet. To give any positive significance to Ahn’s claim by SNU famous scholars doomed to fail, that is merely the legacy of Gyeong-Seung Imperial University. Ahn’s works don’t deserve our new attention. He should be simply forgotten.

* Key Words: Ahn Hwak(安廓), Ju Si-Gyeong, Scientific Study of Korean Language, Lee Ki-Moon, Classical Chinese.

· 논문투고일: 2020년 1월 13일 ·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1일 · 게재결정일: 2020년 2월 17일